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3호 [국제 제25612호] 주제 106 (2017)년 4월 13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강하 및 대상물 타격경기대회 - 2017》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강하 및 대상물타격경기대회 - 2017》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훈민전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 육군상장 리영길동지, 조선인민군 제630대연합부대 부대장 육군소장 김영복동지, 정치위원 육군소장 유원호동지, 조선인민군 해군사령관 육군상장 김명식동지, 정치위원 해군중장 허영춘동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항공군상장 김광혁동지, 정치위원 항공군상장 손철주동지가 맞이하시였다.

경기대회는 특수작전부대들과 경수송기부대들의 협동지휘실현 및 적후방침투, 대상물타격, 전투정확속에서의 실탄사격, 타격대들의 비행대호출 및 목표지시에 의한 무장직송기전대타격능력을 확정함으로써 일단 유사시 어떤 특수작전임무도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작전전투계획의 현실적가능성을 완성하고 전투행동조법을 더욱 숙연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경기대회에는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 조선인민군 제630대연합부대 제2625군부대관하



5지대 4타격대, 조선인민군 해군 제252군부대관하 1지대 2타격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323군부대관하 1지대 1타격대의 전투원들과 항공 및 반항공군의 경수송기, 무장직송기전대들이 참가하였다.

경기대회는 순차에 따라 경수송기에서 무하된 전투원들이 대상물들에 대한 습격, 파괴를 진행한 다음 화력호출을 받은 무장직송기전대들이 증강하는 《적》들을 가상의 원목표에 화력타격을 떨어내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경기대회참가자들의 심장은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의 전군길을 감히 막아보려고 발광적인 침략전쟁연습소동을 미친듯이

떨리며 최후발악하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이 땅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쬐면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백두산의 폭풍같이, 백두산의 번개같이 단숨에 달려나가 침략의 무리들과 그 본거지들을 모조리 축항쳐버리고 통일된 백두산대국의 새 아침을 총대로 안아오고야말 원주격멸의 의지로 세차게 눈부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김시소에서 경기대회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경기를 시작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경수송기들이 초저공으로 훈련장 상공에 날아들고 전투원들이 우박처럼

쏟아져내렸다. 서슬푸른 칼날이 되어 원수들의 심장을 무자비하게 도려낼 멸적의 각오로 가슴 불태우며 훈련하고 또 훈련해온 전투원들은 지정된 강하지점들에 날새마냥 착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투원들이 초저공강하를 정말 잘한다고, 담대한 배짱들이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타격대지휘관들과 경수송기전대 비행사들이 협동하여 투히점과 고도, 탈출시기를 바로 정하였다고, 적대상물에 대한 정찰자료를 놓고 연구를 깊이한것이 알린다고 기뻐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타격대상물들을 제법 리 확정된 타격대지휘관들의 전투임무수립에 따라 습격조법은 《적》특공대와 미싸일기지를 가상하여 실비한 대상물들을, 차단조는 진출하는 《적》땅크들을, 엄호조는 증원하는 《적》보병을 박격포사격으로 타격전압 소멸하는 전투행동을 과감히 벌리였다.

공복듯이 울리는 총성, 발사편에 얻어맞은 《적》땅크들에서 솟구치는 화염, 작렬하는 포탄의 폭음으로 하여 훈련장은 불도 가나마냥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용맹한 전투원들이 종횡무진하며 적대상물을 불마당질하는것을 보시며 지휘관들의 결심채택도 정확하다고, 맡겨진 임무를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전투원들은 남반부의 신발들 주름잡으며 내달리는 명호를 방불케 한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타격대들의 화력호출을 받고 편이어 날아와 《적》들에게 명중탄불소나기를 퍼붓는 무장직송기들의 공습전투행동도 볼만 하다고, 땅우에서는 복수의 불이 흐르고 하늘에서는 정벌의 번개가 내리치고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자동보총실란사격도 보아주시고 총알에 눈이 달린것 같다고, 총을 정말 잘 쏜다고, 백발백중의 명사수들이라고 치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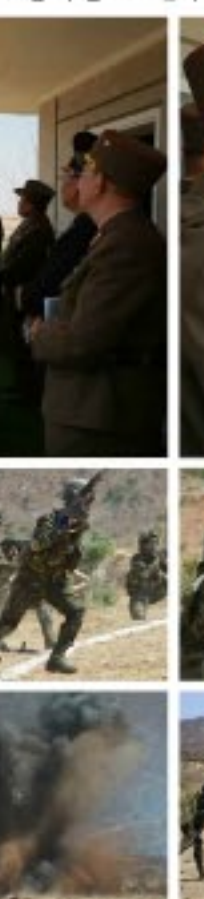


타격대들의 명사수들이라고 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타격대들의 화력호출을 받고 편이어 날아와 《적》들에게 명중탄불소나기를 퍼붓는 무장직송기들의 공습전투행동도 볼만 하다고, 땅우에서는 복수의 불이 흐르고 하늘에서는 정벌의 번개가 내리치고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자동보총실란사격도 보아주시고 총알에 눈이 달린것 같다고, 총을 정말 잘 쏜다고, 백발백중의 명사수들이라고 치하시였다.

타격대들의 명사수들이라고 치하시였다.



타격대들의 명사수들이라고 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타격대들의 화력호출을 받고 편이어 날아와 《적》들에게 명중탄불소나기를 퍼붓는 무장직송기들의 공습전투행동도 볼만 하다고, 땅우에서는 복수의 불이 흐르고 하늘에서는 정벌의 번개가 내리치고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자동보총실란사격도 보아주시고 총알에 눈이 달린것 같다고, 총을 정말 잘 쏜다고, 백발백중의 명사수들이라고 치하시였다.

타격대들의 명사수들이라고 치하시였다.



타격대들의 명사수들이라고 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타격대들의 화력호출을 받고 편이어 날아와 《적》들에게 명중탄불소나기를 퍼붓는 무장직송기들의 공습전투행동도 볼만 하다고, 땅우에서는 복수의 불이 흐르고 하늘에서는 정벌의 번개가 내리치고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자동보총실란사격도 보아주시고 총알에 눈이 달린것 같다고, 총을 정말 잘 쏜다고, 백발백중의 명사수들이라고 치하시였다.

타격대들의 명사수들이라고 치하시였다.



타격대들의 명사수들이라고 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타격대들의 화력호출을 받고 편이어 날아와 《적》들에게 명중탄불소나기를 퍼붓는 무장직송기들의 공습전투행동도 볼만 하다고, 땅우에서는 복수의 불이 흐르고 하늘에서는 정벌의 번개가 내리치고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자동보총실란사격도 보아주시고 총알에 눈이 달린것 같다고, 총을 정말 잘 쏜다고, 백발백중의 명사수들이라고 치하시였다.

타격대들의 명사수들이라고 치하시였다.



타격대들의 명사수들이라고 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타격대들의 화력호출을 받고 편이어 날아와 《적》들에게 명중탄불소나기를 퍼붓는 무장직송기들의 공습전투행동도 볼만 하다고, 땅우에서는 복수의 불이 흐르고 하늘에서는 정벌의 번개가 내리치고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자동보총실란사격도 보아주시고 총알에 눈이 달린것 같다고, 총을 정말 잘 쏜다고, 백발백중의 명사수들이라고 치하시였다.

타격대들의 명사수들이라고 치하시였다.



타격대들의 명사수들이라고 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타격대들의 화력호출을 받고 편이어 날아와 《적》들에게 명중탄불소나기를 퍼붓는 무장직송기들의 공습전투행동도 볼만 하다고, 땅우에서는 복수의 불이 흐르고 하늘에서는 정벌의 번개가 내리치고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자동보총실란사격도 보아주시고 총알에 눈이 달린것 같다고, 총을 정말 잘 쏜다고, 백발백중의 명사수들이라고 치하시였다.

타격대들의 명사수들이라고 치하시였다.



타격대들의 명사수들이라고 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타격대들의 화력호출을 받고 편이어 날아와 《적》들에게 명중탄불소나기를 퍼붓는 무장직송기들의 공습전투행동도 볼만 하다고, 땅우에서는 복수의 불이 흐르고 하늘에서는 정벌의 번개가 내리치고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자동보총실란사격도 보아주시고 총알에 눈이 달린것 같다고, 총을 정말 잘 쏜다고, 백발백중의 명사수들이라고 치하시였다.

타격대들의 명사수들이라고 치하시였다.



타격대들의 명사수들이라고 치하시였다.